

IBK기업은행 글로벌파이낸스誌 주관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 ★ **글로벌 최우수 - ESG대출**
<Global> Best Bank for ESG-Related Loans
- ★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 ESG대출**
<Asia·Pacific> Best Bank for ESG-Related Loans
- ★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 사회적 채권**
<Asia·Pacific> Best Bank for Social Bonds
- ★ **대한민국 최우수 - 지속가능금융 은행**
<South Korea> Best Bank for Sustainable Finance



CEO REPORT



CEO STORY

자민경(株) 유지은 대표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를 이룬
자연주의 스킨케어 名家



COVER STORY

뷰티시장에서 굳건히 명성을 유지해 온 자민경(썬)은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기업 CEO REPORT> 지난호 보기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SPECIAL THEME

- 04 **THEME ①**
일본 경제, 달라지고 있는가?
- 08 **THEME ②**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일본경제



12 **CEO STORY**
자민경(썬)유지은 대표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를 이끈
자연주의 스킨케어 名家

18 **IBK & START-UPS**
김세영 대표, 최낙은 대표
김용규 대표, 김윤 대표

22 **IBK EXPLORING**
IBK기업은행,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다

24 **GLOBAL ISSUE**
금리 드디어 내려가나?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28 **POLICAST**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성장생태계의 불안정 심화가
우려된다

30 **INDUSTRY REPORT**
은행업종의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

34 **in FUTURE**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38 **MONTHLY INSIGHT**
승리는 기세가 결정한다
기세등등 氣勢騰騰

42 **about TAX**
가업승계, 상속이 좋을까
증여가 좋을까?



44 **about LABOR**
퇴직자 최고의 관심사 실업급여,
주요 이슈는?

46 **CEO툰**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

48 **ECONOMIC REVIEW**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50 **IBK SUPPORT**
중소기업을 위한
One-Point 경영컨설팅





일본 경제, 달라지고 있는가?

최근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실제 닛케이 지수는 2013~2023년 기간 213% 상승했고, 지난해에만 30%가 올랐다. 또 올해 3월에는 4만 선을 기록해 역사적 최고점에 이르렀다. 엔화도 지난 2년간 달러대비 약 20% 절하되며 여행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과연 일본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일본 경제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알아본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울대와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를 거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거품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가 달라졌는가를 알려면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지난 30년간의 일본 경제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약 40년 동안 고속 성장을 달성하며 1980년대에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문제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됐다. 1985년 9월 22일, 무역적자가 심해진 미국과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대표가 모여 다른 4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도록 통화시장 개입을 합의한 것이다. 이 회의가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려 했고, 이는 통화 팽창으로 이어졌다. 또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는 수출보다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부동산 규제를 풀어 건축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주가지수가 5배(1982~1989), 도시 지역 상업 용지가격지수가 5배(1983~1990) 성장하는 등 자산 가격 급등이 이어졌다.

자산 가격 상승, 특히 지가(地價) 상승은 일본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 심정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결국 일본 중앙은행은 1989년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할인율을 대폭(0.75%) 인상하고, 정부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 나서 자산 가격 급등에 대처하게 된다. 사실 1981~1990년 인플레이율은 평균 2%에 불과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할인율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 중앙은행의 정책변화는 결국 자산 가격을 하락시켰다. 1989년 말, 4만에 근접했던 닛케이 지수는 약 2년 후 반 토막이 나고 30여 년 후인 2024년이 돼서야 전고점을 회복했다.

기업의 투자 감소로 위기 커져

일본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이 자산 가격만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예상과 달리 실물경제 지표도 크게 동요했다. 1991년부터 아베노믹스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2012년부터 시행한 경제정책 시작 전인 2012년까지 실질 경제성장률은 평균 1%로 대폭 하락했고, 실업률은 평균 4%로 상승했다.

실물경제가 변화한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투자 감소다. 거품경제 기간 중 낙관적 전망을 두고 투자를 해 온 기업들이 결국 과잉투자로 판명되며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시작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OECD 시간당 임금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에 평균 상승률 4.1%를 기록했던 실질 임금도 사실상 동결되기 시작해 1990~2012년 기간에는 연평균 1%를 기록하고,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물가상승률도 하락하면서 1990년도 중반에는 물가하락, 즉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 이런 현상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21년까지 30여 년간 지속된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바람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수상에 취임하고 약 9년간 일본을 통치하면서 일본 경제는 변화를 맞게 된다. 아베 총리는 ①과감한 통화정책 ②유연한 재정정책 ③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보통 ‘아베노믹스’ 혹은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부른다. 2013년 3월에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2%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시장에 자금을 풀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장단기금리 조작(Yield Curve Control)을 통해 단기 이자율 -0.1%, 장기 이자율 0%를 목표로 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도입했다. 정부도 채권발행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 완화 정책을 추구했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 노동 시장에 경쟁 구도를 도입하는 등 생산성을 제고시키고자 시도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초기 반응은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을 통해 나타났다. 주식시장은 2013년 88% 급등했고 대미 환율도 1년 사이에 80엔대에서 100엔대로 평가 절하됐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본 주식시장 강세와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10년 동안 실물경제의 반등은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1을 통해 아베노믹스 이전과 이후 10년을 비교해 보면 민간투자 증가율, CPI 인플레이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 것과 GDP대비 순수출 비율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다. GDP 성장률, 개인소비 증가율,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내림세를 보였다.

표1. 일본 경제의 주요 경제 지표 변화율 (단위: %)

	2003-2012 평균	2013-2022 평균
GDP 성장률	0.70	0.56 (▼0.14)
개인소비 증가율	0.70	-0.04 (▼0.74)
민간투자 증가율	0.05	0.98 (▲0.93)
정부 소비 성장률	1.31	1.60 (▲0.29)
GDP대비 순수출 비율	-0.37	-0.26 (▼0.11)
CPI 인플레이션	-0.10	0.90 (▲1.00)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0.92	0.84 (▼0.08)
시간당 임금 상승률	0.42	0.53 (▲0.11)

그러나 최근 일본 경제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닛케이 지수는 46% 상승했고, 엔화도 20%가량 절하됐다. 닛케이지수가 상승한 것은 일본 기업의 거버넌스 질 향상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일본 기업의 순이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디플레이가 멈춰 표2에서 볼 수 있듯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5%, 3.2%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중이다. 물가 상승은 올해에도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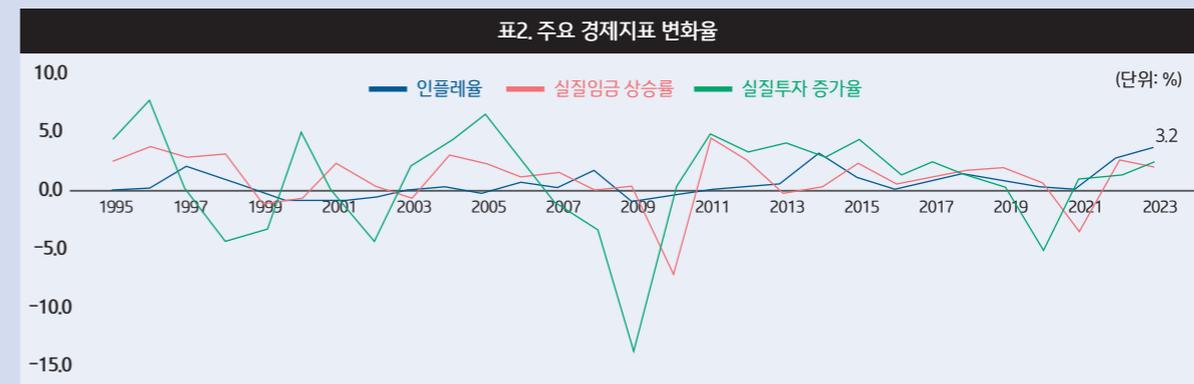


신문과 방송이 물가 인상에 관한 기사로 넘쳐나고 있다. 물론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강달러의 영향이 크지만 2년 반 동안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라 보기 힘들다. 실물경제를 보아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지난 3년 평균 2%에 달해 지난 10년 평균 0.6%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질임금 상승은 결국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에 이로움을 준다. 실질 투자도 지난 2년간 평균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 돼 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거품경제 붕괴 후 하락한 민간투자 증가율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작년 1.9%를 기록해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영국·독일·프랑스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경제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

지난 2년여 간 일본에 어떤 변화가 경제의 순바람을 일으켰을까? 저출산·고령화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이 문제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2019년 출입국 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을 설립해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능동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쏟아내고 있다. 고령자들의 취업도 증가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또한 부족한 내수를 수출과 관광객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다. 엔화 저평가를 실현한 금융정책도 결국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세계 4위 경제 대국에 가시적 변화를 불러올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난 2년간의 흐름은 청신호로 보인다. 일본 경제가 회생한다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일본이 취한 정책을 잘 검토해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찾는다면 저출산·고령화로 고민하는 한국 경제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본 경제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다. 📰





이창민
 한국의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도쿄공업대학,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등에서
 일본경제를 연구했으며 현재
 한국외대 한일정책연구센터장
 및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한 일본 경제

일본은행이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는 것은 8년 만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17년 만이다.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선순환이 가시화 되면서 금융정책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장기 불황을 딛고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 경제의 현 상황을 알아본다.

일본은행의 정책변경

2024년 3월 18~19일에 열린 제3차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은 -0.1%인 정책금리를 0~0.1%로 올리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단행했다. 금리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 5월 0.5%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17년 만의 일이다. 마이너스 금리만 해제한 것이 아니다. 2016년 9월에 도입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는 수익률곡선 제어 정책(Yield Curve Control, YCC)도 폐지하고, 2010년부터 지속해 온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 매입도 중단했다.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로 불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일본의 금융정책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과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는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선순환이 정착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사실 물가상승은 2022년 초부터 시작됐고, 일본은행이 목표치로 한 물가상승률 2%는 2022년 4월부터 2년 연속 달성 중이다. 이에 지난해에도 많은 전문가가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을 예상했지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장고 끝에 금리 정상화를 포기했었다. 2023년 춘투(春闘, 부월 임금협상)의 임금인상률 3.6%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본 노동자의 70%가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률이 2.92%에 그쳤고, 그 결과 실질 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이유다.

결국 올해의 춘투 결과에 따라 일본은행이 결심을 굳힐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올해 3월에 일본 최대 노조연합인 렌고(連合)가 춘투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전체 임금인상률은 1991년 이래 가장 높은 5.28%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임금인상률도 1992년 이래 가장 높은 4.42%를 기록했다. 실질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마

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실질임금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확신한 일본은행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인 4월 3일에 발표된 춘투 3차 집계 결과에서도 전체 임금인상률은 5.24%,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은 4.69%를 기록해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이 큰 무리없이 연착륙하는 분위기다. 다만 변수는 역사적인 저금리 상황이다. 일시적으로 1달러 당 160엔까지 폭락한 슈퍼엔저 상황을 극복하려면 일본은행이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에다 총재는 환율 조정을 위한 금리 인상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일본은행이 금융시장과 줄다리기를 시작하면 환율방어에도 실패하고 금리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풍금리 인상이 기업의 도산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자칫 잃어버린 30년이 4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내각부가 지난 5월 16일에 발표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5%를 기록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2%나 역성장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일본은행이 당분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저온호황'구조의 균열

일본 경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지만 경기순환 측면은 물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불황을 탈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2020년 5월부터 일본 경제가 제17순환의 경기확장 국면에 들어섰고 코로나19 회복이 더딘 탓에 착시효과까지 더해졌다. 코로나19로 주요 선진국 경제는 2020년에 역 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2022년에 걸쳐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일본은 2023년이 돼서야 비로소 명목·실질 GDP 모두 2019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보다 1~2년 뒤쳐진 셈이지만 비즈니스 사이클상 현재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여기에 더해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반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엔고를 이용해,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이후 공급망 재편을 위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은 2만 5,000개 이상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 이 중 비제조업 57%, 제조업 43%로, 일본 전체 제조업 생산의 1/4 이상은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하면서 엔저가 시작되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손쉽게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자수익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국내에서는 설비투자나 임금상승의 유인이 크지 않은 탓에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현금으로 쌓아 두게 됐다. 결국 엔저로 인해 수출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호황이지만, 국내의 설비투자는 늘지 않고 임금상승의 모멘텀이 약한 탓에 민간 소비도 맥을 못 추는 '저온호황'이 발생하게 됐다. 5년 11개월에 걸친 아베노믹스 경기가 실감할 수 없는 호황으로 끝난 것도 바로 이러

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이러한 '저온호황'구조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업환경의 변화로 국내 설비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23년에 명목 설비투자 금액은 100조 엔을 넘겼는데 명목 설비투자 금액이 100조 엔을 넘어선 것은 1991년 이후 32년 만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일정 부분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이러한 변화가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TSMC를 비롯해 마이크론·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공장과 연구소를 신설했고 최근에는 오픈AI나 클라우드는 관련 빅테크 기업들 또한 앞다투어 일본으로 모여 들고 있다.

올해 4월 10일 미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반도체·AI·청정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요청했고, 이에 화답하듯 미



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줄지어 일본 투자를 결정했다. 오라클은 향후 10년간 1조 2,000억 엔, 아마존은 5년간 2조 2,600억 엔, MS는 2년간 4,400억 엔, 구글은 4년간 1,000억 엔 등 35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일본으로 모인다. IT혁명에 뒤처졌던 일본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무기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이며 차세대 'AI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40년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균형

좀 더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면 현재 일본 경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마무리돼 가는 과정에 있다. 일본경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불만 없는 착한 주주(もの言わぬ株主), 내부 승진한 CEO의 강력한 경영권, 일본형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제도, 기업별노조), 기업과 은행의 관계(메인뱅크 시스템), 기업과 정부의 관계(행정지도)는 모두 1940년대에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면서 일본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이윤 동기를 부정하고 전쟁 승리라는 국가 목표를 우선시했다. 그 결과 주주총회는 유명무실화되고, 주주들의 배당은 축소됐다. 기업의 자금 조달은 주식이 아닌 은행차입에 의존하고,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기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노동자들의 이동을 금지하고 정기승급만 인정했으며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은 50년이 지난 1997년 은행위기 때였다. 일본 정부는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와 함께 통제적 금융시스템의 상징이었던 대장성(大藏省)을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할했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은행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고 2007년이 돼서야 비로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율이 1.5%까지 감소했다.

불황기에 기업경영을 압박해 왔던 노동시장도 개혁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정리해고가 본격화되고 2002년에는 200개가 넘는 기업에서 4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시장도 확대되기 시작해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8%에 이른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자본시장, 노동시장 개혁에 비하면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시동은 늦게 걸렸다. 2014년에 스투어십십 코드, 2015년에 기업 거버넌스 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게 되고 기업은 주주 이익의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환경이 마련됐다. 최근 10년간 독립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은 프라임(도쿄증권거래소의 시장 가운데 최상위 시장) 기준 47%에서 100%로 늘었고, 적극적인 행동주의 펀드도 같은 기간 7개에서 70개로 9배나 증가했다. 그 결과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된 2013년을 기준으로 주가는 4배 이상 상승했다.

다만 네이버 라인 사태에서 보듯이 행정지도를 포함한 기업과 정부의 특수한 관계는 여전히 1940년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경제안전보장 이슈와 결부되면서 이 점은 오히려 시대적으로 적합한 시스템으로 둔갑했다. 결국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제외하고 1940년대에 만들어진 전시(戰時) 통제 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에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은 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대수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경제의 역사적 대전환을 상징하는 기업이 바로 소니(Sony)다. 가전 수출로 한 시대를 풍미한 소니는 한때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뻔했지만 지금은 영화, 음악, 게임과 같은 콘텐츠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1990년대 이전의 소니가 과거의 일본경제를 상징한다면 2010년대 이후의 소니는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한 현재의 일본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민경(주) 유지은 대표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를 이끈 자연주의 스킨케어 名家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변화하며 꾸준히 성장한 기업에는
쉬이 흔들리지 않는 경영 신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트렌드와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뷰티 시장에서
굳건히 명성을 유지해 온 자민경 또한 그렇다. 자민경의
성장 여정에는 독보적인 기술력 기반의 혁신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전 정신이 자리한다.



창업
2004년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72길 33-6



인원
30여 명



주요사업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2023년 매출액
141억 원



2024년 매출 목표
300억 원

자연스럽고 담백하게, 美의 본질을 추구하다

2004년 설립된 자민경은 일상을 한층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자연 친화적인 스킨케어 아이템과 웰빙 라이프를 선사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보이며 자민경을 대표하는 브랜드 ‘크레마카라콜’과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자연주의 상품 ‘뉴트리’, 업사이클링 비건브랜드 ‘본 어글리’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자민경 원기녹용’ 등으로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자민경 유지는 대표는 초창기부터 ‘자연스럽고 담백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불필요한 성분은 최소화하고 원재료의 성분을 고스란히 담은 자연주의 제품을 내세우고 있다. 자민경의 첫 탄생을 알린 ‘자민경 곡물케어’가 대표적이다.

“대학 졸업 후 주한에콰도르대사관에서 대사행정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빈 수행 및 통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사 부인들과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모임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면서 쌀뜨물이나 녹두팩 등 전통미용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곡물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알아봤는데, 그저 곡물을 용기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곡물은 화장품이 될 수 없을까?’란 생각에 곡물케어 제품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연구를 함께할 업체를 수소문하고 집요한 개발 과정을 거친 끝에 곡물 화장품 제조기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엄격

한 제조 공정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방부제 및 인공향료, 인공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곡물케어 제품을 국내 유명 온라인몰에 론칭했다. 인터넷 쇼핑몰이 확대되던 시기와 맞물리며 무려 한 달 만에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오로지 기술력과 품질만으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유 대표는 대사관을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뛰어들었다. 2008년에는 달팽이크림을 시장에 선보이는 참신한 행보로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이처럼 ‘자민경만의, 자민경다운’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민경의 이름을 각인시켜 나갔다.

위기 속에서 빛난 도전, 성장을 견인하다

기업가의 진가는 위기에 맞닥뜨릴 때 비로소 발현된다. 창업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끌던 유 대표는 창업 4년 차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다. 내부 직원들이 자민경의 제품에 자신들이 만든 상표를 붙여 몰래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에 고통받던 나날,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신뢰와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유통 채널의 협업 제안을 거절하고 한 곳의 온라인몰에서만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몰 관계자가 다른 업체에 자민경 곡물케어의 제조기술과 제조업체, 협력업체 등의 모든 정보를 빼돌렸다. 결국 해당 업체는 자민경의 곡물케어와 유사한 제품





효과를 극대화한 달팽이크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론칭한 2008년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많이 침체된 시기였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의미를 담아 브랜드 ‘뉴트리’를 만들고 달팽이크림을 9,900원에 판매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99특가’를 처음 시도한 사례였죠. 단 하루 만에 3,000개가 판매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 대표의 혁신 행보는 계속됐다. 새로운 소비자를 발굴하기 위해 군납 계약 체결을 맺었다. 군대 마트에 달팽이크림을 공급하자 장병들 사이에서는 달팽이크림이 생필품으로 자리매김했고 오늘날 PX화장품의 근간을 마련했다. 유 대표는 제품 개발과 판매 채널 확대를 끊임없이 개척해나가는 자세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위기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자민경의 정체성은 ‘오리너구리’라고 할까요. 포유류인 동시에 조류인 오리너구리는 분류 기준인 종속과목강문계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고 유일한 오리너구리로 분류

된다고 하더군요. 유구한 세월 동안 환경 변화에 맞춰 적응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생명력을 이어온 동물인데요. 자민경이 걸어온 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유일한 우리만의 경쟁력으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소비자로부터

뷰티 산업은 급변하는 환경과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민경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면역력과 웰빙 키워드를 앞세워 건강기능식품에 주력하는가 하면,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생산 방식을 적용한 비건 브랜드 ‘본어글리’를 론칭했다. 유 대표는 오늘에 안주하는 안일한 자세를 경계하며 혁신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모든 답은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고객의 시각과 관점으로 제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죠. 제품 생산자에 앞서 소비자의 눈으로 필요한 것, 원하는 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누릴 수 있는’ 뷰티 라이프를 선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K-뷰티가 전 세계 뷰티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자민경 또한 해외시장에 꾸준히 진출하며 활동 무대를 넓히는 중이다.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며 성장의 진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유 대표의 각오는 여전히 단단하다. 정직하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오래 오래 생산하겠다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자민경의 밝은 미래가 읽힌다.

“사업 초창기에 ‘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힘든 길을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고 싶은 바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곳곳 각 가정에 자민경 제품이 하나 정도 놓여 있는 시대를 꿈꿉니다. 소비자와 사회에 이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History

- 2004
 - 자민경(주) 설립
 - ‘자민경 곡물케어’ 5종 출시
- 2008
 - 화장품 제조업 허가 및 공장기부설연구소 증설
 - 천연곡물 피부미백용 조성물 특허 등록
- 2010
 - CJ오쇼핑, H몰, GS홈쇼핑 온라인몰 ‘달팽이크림’ 최다 판매 달성
- 2011
 - 국군복지단육·공군마트군납 계약 체결
 - 200만 달러 수출 성과 달성
 - 일본 수출라쿠텐 ‘크레마카라콜 달팽이크림’ 판매 1위 달성
- 2013
 - 홍콩 왓슨스 입점 계약 체결
 - 크레마카라콜 달팽이크림 300만 개 판매 돌파
- 2018
 - 자사 제조공장 준공
- 2023
 -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본어글리’ 론칭



- **핵심 기술**
자폭드론 핵심기술(영상 유도 비행제어, 종말 유도용 표적 탐지·추적, 군집비행)
- **주요 성과**
60mm 재래식 탄 장착 자폭드론&소형 정찰드론
자동조종 60mm/81mm/105mm 재래식 탄 투하 공격 드론

☞다츠, 김세영 대표

국내 유일 자폭드론 개발 및 제조

☞다츠는 표적탐지, 추적 및 인공지능 분야와 항공기 시스템 분야의 기술 융합을 통한 인공지능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업체다. 로봇제어&컴퓨터 비전, 실시간 임베디드 등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 자폭드론 개발 및 제조에 일조하고 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최근 유출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문건에 의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전쟁 발발 2년이 넘는 지금,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군사력에 있어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던 비결, 그 비밀은 드론폭탄에 있다. 비록 일반 드론과 박격포의 조합인 원시적 방법이지만, 힘없는 나라가 그나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가 드론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폭용 드론을 개발·상용화하는 업체가 바로 다츠다. 김세영 대표는 국방 과학연구원에서 23년간 정밀유도병기를 개발해 온 전문가로, 드론 개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역량을 쌓아 온 부대표와 의기투합해 2019년 다츠를 창업했다. 이후 국방부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자폭드론에 대한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다츠의 제품에는 자폭드론^{Wrath}, 정찰드론^{Meerkat}, 자동조종 탄 투하드론이 있어요. 신속한 표적 확인에서 비롯된 은밀하고 효율적 타격, 그리고 정확한 폭격 피해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다츠만의 드론 핵심기술(비행제어, 항법, 기체설계, 군집)과 자폭드론의 핵심기술(영상 유도 비행제어, 종말 유도용 표적 탐지·추적 기술)로 탄생했습니다.”

다츠는 다수의 자폭드론 비행 시험을 통한 비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폭드론 군납품 및 군부대 운용 시험 수행 경험이 풍부하다. 이러한 자폭·정찰 드론 핵심기술은 경쟁사에 비해 제품단가를 낮추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데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다츠가 개발한 드론은 이 분야 선두기업인 미국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사의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나 이스라엘 IAI사의 로템^{ROTEM} 대비 1/20 이하이고 휴대성능은 월등히 높다. 그만큼 우수한 비용 효율을 자랑한다. 유도무기체계와 드론 기술의 융합, 다츠의 높은 기술력은 블루오션의 가능성을 지니며 국내에는 딱히 경쟁상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K-방산에 큰 역할을 할 다츠의 다음 행보가 관심을 모은다.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자동화 로봇 시장, 하지만 기술발전은 늘 그렇듯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낙은 대표는 소외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용 로봇 기술을 제공해 대기업과의 디지털 자동화 격차를 줄이고자 창업을 결심했다.

“전 세계 물류 산업이 자동화로 전환되며 표준화로 규격 된 팻렛^{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할 때 쓴다.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유인·무인 지게차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인지게차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세계 최초 굴절형 무인지게차 자율주행 로봇 ‘피버터^{Pivoter}’를 개발했다. 좌우 105도 굴절되는 관절을 가지는 피버터에는 컴퓨터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기술이 적용된다. 1.6m 이내의 협소한 폭에서도 팻렛을 운반할 수 있는데 이는 체계적이지 않은 비정형적 환경의 중소기업 물류시스템에 꼭 필요한 기능이다.

“물류로봇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작업자’로 만드는 핵심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지정된 도착지에 도달하기 위해 경로를 탐색하고 이동할 때 장애물을 회피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는 것은 물론 로봇의 경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최적화하는 별도의 기능을 가져야 하죠.”

알오지스틱스의 굴절 지게차 로봇 시스템 피버터는 중소기업 디지털 자동화 전환에 있어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다. 지금의 성과가 있기까지 공동 창업자와의 결별과 국가지원사업의 탈락, 더디기만 한 기술개발 속도, 미흡한 의사결정과 자금압박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마다 버팀목이 된 것은 회사의 비전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팀 동료들과 파트너사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러기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자동화 전환’이라는 목표를 완벽히 이루지는 못해도 로봇공학을 이용해 최대한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최종 사업 목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무인지게차를 호출·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마존의 키바^{KIVA}, 그레이오렌지^{GreyOrange}의 버틀러^{Butler}에 버금가는 알오지스틱스의 피버터! 그 활약을 기대해 본다.

☞알오지스틱스, 최낙은 대표

세계 최초 굴절형 무인지게차 자율주행 로봇 개발

☞알오지스틱스는 팻렛을 이용하는 모든 기업에 무인지게차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자동화 전환이란 쉽지 않은 문제를 로봇공학^{Robotics}과 다양한 실행계획^{Logistics}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주요 기술**
자율주행 제어기술, 굴절주행 제어기술
- **시장 규모**
약 1조 원(국내 무인 지게차)
- **주요 성과**
세계 최초 굴절형 무인지게차 로봇 개발



- **핵심 기술**
BASyMCo(인공지능 복합균주 조합설계) 플랫폼
- **응용 사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헬스&뷰티 소재, 스마트팜 미생물 솔루션 개발
- **홈페이지**
www.biomatz.com

㈜바이옴에이츠, 김용규 대표

국내 유일의 복합균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바이옴에이츠는 인공지능 기반의 조합설계 플랫폼 **BASyMCo** (Bespoke Assembly of Synthetic Microbial Consortia)을 이용해 단일균주의 유효성과 분변이식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균주 치료제를 개발한다.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의 'Biome'과 친구, 동료라는 뜻의 'Mates'의 합성어로, 'Biome is our mates'라는 의미가 있다.

장 내 1,000종이 넘는 미생물은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 내 미생물들은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7.5m에 달하는 장에서 각자의 최적 환경에 분포한다. “기능성 균주와 상호작용을 하는 미생물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면 성공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친구를 찾아주는 것이다. 하지만 1,000종이 넘는 미생물의 친구를 찾는 일은 절대 만만치가 않다. 김용규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다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재직 중에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직접 창업에 도전,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김용규 대표는 과거 독일의 막스 프랑크연구소와 유럽분자생물학 연구소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를 수행했고, 국내 대기업 재직 당시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공동창업자 김성기 CTO는 건강기능식품 상품화와 혐기미생물 배양 공정을 담당한 산업계 전문가다.

“대부분 기능성 복합균주를 찾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top-down 방식 **건강인 분변 회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체 보유 중인 균주 상호작용 네트워크 맵과 멀티오믹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균주를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훨씬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복합균주 조합설계 기술, 'BASyMCo'는 기능성 균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메이트 균주를 찾아줌으로써 장 내 생착력과 안정성, 활성이 강화된 복합균주, 대다수 환자에게서 일관적인 효능 확보가 가능한 복합균주, 안전한 균주 조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복합균주 조합을 설계해 준다. 또한 BASyMCo 플랫폼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뿐만 아니라, 헬스&뷰티 소재, 스마트팜 미생물 솔루션 개발 등등. 숙주-미생물 상호작용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지구상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미생물, 우리는 이를 필요에 따라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이옴에이츠는 이러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설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다.

관제요원 1명이 담당하는 CCTV의 수 772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판독량 약 2만 4,584건(2006년 대비, 2020년 297% 증가)은 누가 봐도 극한의 근무환경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두 분야는 유난히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지오비전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분석 시스템이 필요한 까닭이다.

“지오비전에서는 사회안전 AI와 의료 AI,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각종 위험 요인을 찾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CT, MRI, X-ray 영상과 환자들의 임상기록을 분석해서 의료진의 판단을 도와주는 SW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오비전의 대표 제품 'ZioSummary'는 장시간 촬영된 CCTV 영상에 등장하는 객체(사람·동물·차량)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짧은 시간으로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솔루션은 지오비전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중기부의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안면골절 진단, 혈액 중의 항생제 농도를 예측해 항생제 투여량 및 시기 결정 등 이미 개발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아이템이 다양하다. 지오비전은 2016년 설립 이래 8건의 국내 특허 등록, 22건의 국내의 특허 출원, 8건의 저작권과, ISO13485, ISO9001 등의 국제 표준 인증,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보유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간의 노력은 올해 30억 원의 매출 기대로 이어진다. 2029~2030년 글로벌 관제 시장의 규모는 약 2,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AI헬스케어 시장은 무려 35.5%의 CAGR (2028년 기준 37억 USD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이나 임상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오비전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의 업무 가중을 덜어주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의료기기 상품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의 안전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을 위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슬로건처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지오비전의 책임의식이 소비자의 기대감을 키운다. 📌

㈜지오비전, 김윤 대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분석 시스템

㈜지오비전은 AI로 사회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이다. 2016년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내 컴퓨터비전/의료영상처리 연구실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오비전 **知照飛前**은 ‘깊이 알고, 비상하여 앞서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 **주요 기술**
ZioSummary/ZioVIS(사회안전분야), FaBoA(안면골절 탐지 소프트웨어)
- **시장 규모**
2029~2030년 기준 2,000억 \$(글로벌 관제 시장), 2028년 기준 37억 \$(글로벌 AI헬스케어)
- **홈페이지**
www.ziovision.co.kr

국내 금융권 최초 지속가능금융 어워드 글로벌 부문 수상 IBK기업은행,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다

지난 4월 30일, IBK기업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ESG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영국 런던 걸킨에서 열린 <글로벌 파이낸스> 주관 지속가능금융 시상식에서 글로벌·아시아·대한민국 전 부문을 석권하며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 성과는 IBK기업은행이 ESG 노력과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 중 최초로 영예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업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글로벌·아시아·대한민국 전 부문 지속가능금융상 수상

IBK기업은행이 글로벌·아시아·대한민국 부문 모두에서 권위 있는 ‘지속가능금융상’을 휩쓰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4월 30일, 영국 런던 걸킨 Gherkin에서 글로벌 금융전문지 <글로벌 파이낸스>가 주관한 지속가능금융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은 <글로벌 파이낸스>가 올해 2월 선정한 지속가능금융상을 수상하는 자리로, IBK기업은행은 ▲지속가능금융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사회적 채권 아시아 최우수 은행상 ▲ESG 관련 대출 글로벌 및 아시아 최우수 은행상 등 글로벌·아시아·대한민국 전 부문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ESG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ESG 관련 대출 시상상은 기업은행이 국내 금융권 중에서 최초로 ‘ESG 관련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며 그동안 SG<소시에테 제네랄>, DBS<싱가포르 개발은행> 등의 해외기관들이 독식했던 부문을 수



지난 4월 30일 영국 런던 걸킨에서 개최된 <글로벌 파이낸스> 주관 지속가능금융 시상식에서 김형일 IBK기업은행 전무이사(왼쪽)가 조셉 히라푸토 <글로벌 파이낸스> 창립자(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는 ESG 원칙을 핵심 운영에 통합하고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개척하려는 IBK기업은행의 확고한 의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ESG경영 앞장서는 IBK기업은행의 가치금융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은 “ESG 경영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녹색대출 공급, 젠더본드 발행, 무료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혁신적인 상품 및 비금융서비스를 확대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세계 속 기업시민으로 고객과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영상을 통해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상식에 참석한 김형일 IBK기업은행 전무이사는 <글로벌 파이낸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ESG 관련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 비결을 묻는 질문에 국내 은행권 최초의 지속가능 연계 대출상품인 ‘ESG경영성공지원대출’을 예로 들며,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무료맞춤형 경영진단 등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을 돕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통해 ESG 성과와 목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이 IBK만의 차별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ESG 연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IBK만의 가치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Check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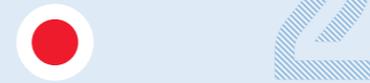
전 세계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눈여겨볼 뉴스를 알아본다.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

지난 5월 20일(현지 시간), 이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전날 동아제르바이잔주 바르즈건 지역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탑승한 헬기가 산악지대에 추락해 라이시 대통령을 포함한 헬기 탑승 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결식이 엄수된 22일에는 수도 테헤란 남부 아자디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등 이란의 지원을 받아 온 '저항의 축'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이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도 라이시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중동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전연패'... 잇따른 선거 패배에 기시다 정권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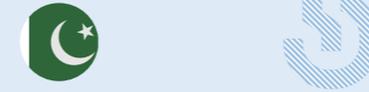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월 치러진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5월 26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마저 참패하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타격을 받게 됐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추천한 스즈키 야스토모 전 하마마쓰 시장이 집권 자민당 추천 오무라 신이치 전 시즈오카현 부지사를 꺾고 당선됐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당내에선 '기시다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4월 중의원 보궐 선거 3곳에서 전패한 자민당의 총재인 기시다 총리가 정권 운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 조기 해산 견해가 확산했다"고 전했다.



69.8% 상승

튀르키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8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4월 물가상승률이 69.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50°C 폭염에 수백 명 열사병



파키스탄에 폭염이 강타해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C를 넘나들고 있다. 5월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기상청은 모헨조다로, 자코바바드, 타타, 베나지라바드 등 특정 지역에서 섭씨 50°C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는 파키스탄 전역의 병원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열사병 환자 수백 명이 치료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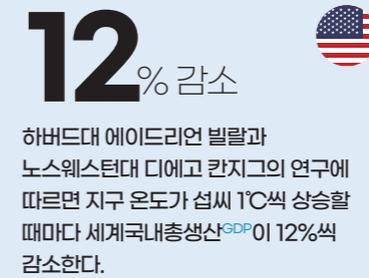
핵폐기물 문제 뚫리나... 스위스, 핵 변환 기술 세계 최초 승인

스위스 당국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 변환' 기술을 승인했다. 그동안 연구 영역에 머물러 온 기술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최초 사례다. 스위스의 핵 폐기물 관리 기관 나그라(Nagra)는 "핵 변환 기술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핵 변환은 한 원소를 다른 형태의 동위원소나 다른 원소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900만 채

지방을 비롯해 도쿄 등 수도권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이 일본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의 빈집은 900만 채(2023년 기준)로, 불과 3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12% 감소

하버드대 에이드리언 빌랄과 노스웨스턴대 디에고 칸지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섭씨 1°C씩 상승할 때마다 세계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한다.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강화



지난 5월 15일, 정부는 칠레와 '한국-칠레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리튬 등 핵심광물에 대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칠레의 광물 찌꺼기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기술 개발 협력과 한국의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을 적용한 협력 등 한국 기업의 칠레 진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금번 협력 위 개최를 계기로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180억 달러

미국 정부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등 대중 전략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금리 드디어 내려가나?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지난 5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았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우리 금융시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거시경제, 국제금융을 연구하고 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일보 경제시평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하 연준**의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결제통화인 달러화를 보유한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개별 위원들의 말 한마디에 주요국의 시장금리와 주식가격이 등락한다. 미국 연준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인하했고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뿐만 아니라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미국 정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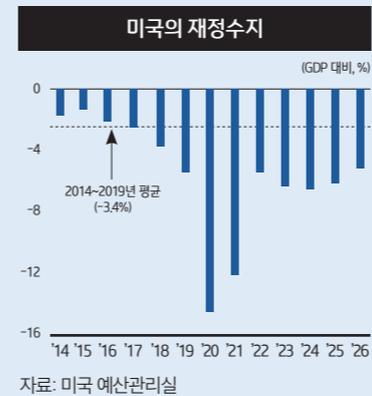
민간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결과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6월에는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오르면서 40년 전의 고물가 시기를 소환하기도 했다. 연준은 고물가 현상에 따라 2022년 3월 금리를 인상했다. 이후 이른바 ‘빅 스텝’ **0.5%p 인상**과 ‘자이언트 스텝’ **0.75%p 인상**을 반복하며 2023년 7월 5.5% **상단 기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2022년 말 금융시

장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시점은 가시적이지 않다.

미국 고금리의 원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유로존 4.5%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적이 고용 최대화와 물가안정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은 만큼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실제 속도는 상당히 더딘 상황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재정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뒤에도 상당한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4~2019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4%였으나, 미국 예산관리실에 따르면 2023~2025년에도 재정적자 비율이 6%를 상회하며 미국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서서히 진행되고, 그만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주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정상화로 회복되는 과정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정책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플레이션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연준은 금리를 낮게 인상해 고물가 현상이 유발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고물가를 확실하게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신뢰를 지켜 나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보다 높지도 낮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미국 연준의 목표다. 그러나 고물가가 이미 장기화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할 위험보다 2%를 상회할 위험에 더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하락하는 속도에 비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을 주시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의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 1997

년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어 자본 유출에 더 민감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 통화정책이 미국 통화정책에 일부 동조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 여건은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이 2023년 말 기준 GDP 대비 46%에 육박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넉넉하다. 또한 수출 회복으로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다.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 **3.5%**과 미국 **5.25%~5.5%** 간의 금리 격차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음에도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우리 경제의 물가 흐름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재정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하락하고 고금리 기조도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연준의 고금리 기조를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로 경제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점차 정상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성장생태계의 불안정 심화가 우려된다

최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잇따라 국내 하반기 성장을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을 제외한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어떠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기업의 성장생태계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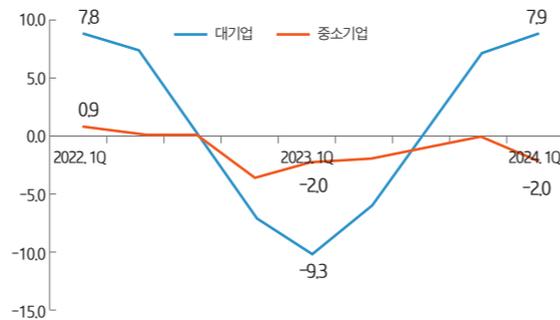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전망치를 상회한 경제성장률, 하반기도 장밋빛 일까?

최근 국내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강한 대외수요에 힘입어 생산활동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전망기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하반기 경제여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수출 주력 업종을 제외한 업종들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라 내수 회복이 둔화되면서 현재의 부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 예를 들어 금속가공·전기장비·고무 및 플라스틱·생활 공산품 관련 기계와 장비 등은 하반기에도 전반적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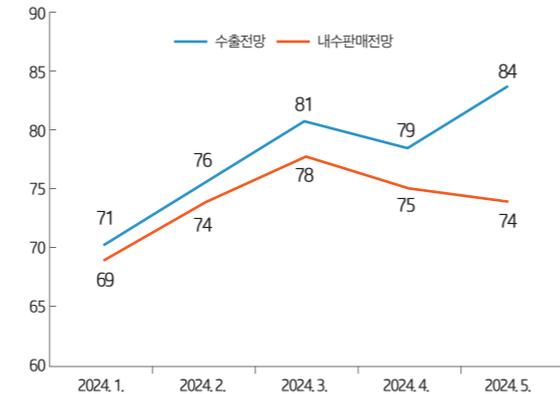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대기업 vs 중소기업)



주: 매출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매출 BSI(수출 vs 내수)



주: 둔화<100<확대, 자료 한국은행

하반기에는 거시경제와 실물 주체 간의 성과와 체감, 그리고 경제 주체가 가진 특성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격차가 심화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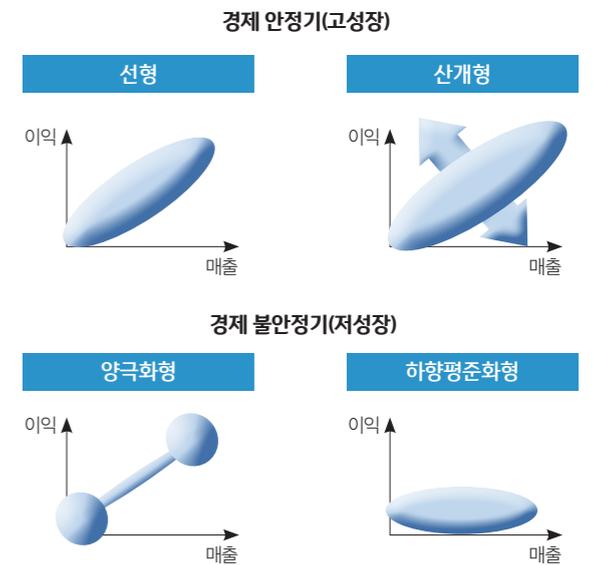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격차 심화 우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기 격차 확대다. 생산지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은 2023년 하반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한 뒤 연이어 상승 추세인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세를 지속하며 대기업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이다. 2024년 하반기의 특징 중 하나는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다. 늘 그렇듯 수출 업종과 내수 업종의 중소기업 간 양극화, 더 들어가 수출품목이 무엇인지, 수출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내에서도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가 상이하다. 과거 중국 중심의 중소기업 수출이 미국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변동에 따른 주력 품목을 적시에 변환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업의 성장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

사실 기업의 성장생태계는 경제 발전단계와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처럼 움직인다. 경제가 안정기일 때 기업의 성장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선형관계를 이루며 기업이 균형적으로 분포한다.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성과가 좋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성장생태계 안에서 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최상위와 최하위 성과 그룹 간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안정성이 더 지속되면 성과가 모두 나빠지는 하향평준화로 이어진다. 양극화는 기업 성장생태계의 단절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지만 성과가 좋은 집단, 즉 성장 주도층이 일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하향평

경제 환경변화와 기업 성장 생태계



준화는 지속가능한 성장계층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위험하다.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외부적 원인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지적돼 왔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수립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제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 간에도 이러한 경영 행태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 성장생태계는 양극화를 넘어 하향평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은행업종의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증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을 비교했을 때 주변국보다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은행 증권을 담당하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조는 지속

지난 1월 말, 금융업종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앞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2월 26일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업가치 저평가 개선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 기업의 주요한 저평가 요인으로 낮은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와 배당성향을 지적한 만큼 배당주인 은행주의 점진적 주주환원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성향을 합한 총주주환원율은 한국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과거 7년 평균 미국 대형은행 총주주환원율은 90%, 일본 대형은행은 48%인 데 비해 한국 시중은행은 28%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ROE는 한국 시중은행이 8.5%로, 미국 대형은행 10.5%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본 대형은행 7.5%보다는 높다. 반면 한국 시중은행 PBR은 0.4배 수준으로, 미국 대형은행 1.2배와 일본 대형은행 0.8배 대비 낮아 글로벌 은행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는 총주주환원율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국 은행들이 충분히 총주주환원율을 올릴 수 있는지가 은행업종 주가를 올리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위험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보유 비율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기준(13%)으로 총주주환원율을 상승시키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보통주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의 주가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CET-1의 경우 지방은행은 제한적



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대형은행의 경우 충분한 주주환원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4월 총선과 5월 2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금융업종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유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다. 4월 총선에서 범야당이 승리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5월 2일에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세제 혜택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금융업종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주주환원 여력이 큰 은행의 경우 세제 혜택 여부가 주주환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금 중장기적으로 은행업종의 주가는 우상향이 기대된다.

은행 수익성은 양호

총주주환원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의 양호한 수익성이 견비되어야 한다. 과거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는 추세였다. 기준금리가 하락 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하락했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행의 수익 대부분이 이차이익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차이익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부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자산 증가, 고마진 대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 저원가성예금 증가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등으로 수익성 관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하락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성 방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지주의 측면에서는 이익 다각화를 진행함에 따라 비은행 자회사들의 수익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익 다각화의 핵심은 비이자 이익을 늘리는 것인데 비이자 이익의 경우 기준금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금리 하락기에도 비은행 자회사를 통해 수익성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비이자 이익에는 증권사의 거래수수료 및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유가증권 평가이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문제는 비용

은행의 이익은 조달비용 감소와 대출자산 증대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은 비용이다. 은행의 비용 효율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는 영업이익경비율 *Cost Income Ratio*, 대손비용률 *Credit Cost Ratio* 이 있다.

은행 영업이익경비율의 경우 비대면 채널 강화와 점포정리·희망퇴직 등으로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를 진행해 왔으며, 과거 2015년 55%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4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전산 관련 투자가 완료되고 인공지능 *AI* 이 어느 정도 인력을 대체한다면 영업이익경비율 역시 더욱 낮아질 여지는 있어 보인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손비용률이다. 대손비용률은 총여신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전성이 악화될수록 대손비용률은 높아진다. 최근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가계 및 기업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PF 충당금전입액까지 더해져 대손비용률은 높아진 상황이다.

2024년 1분기 은행업종은 대체로 충당금 적립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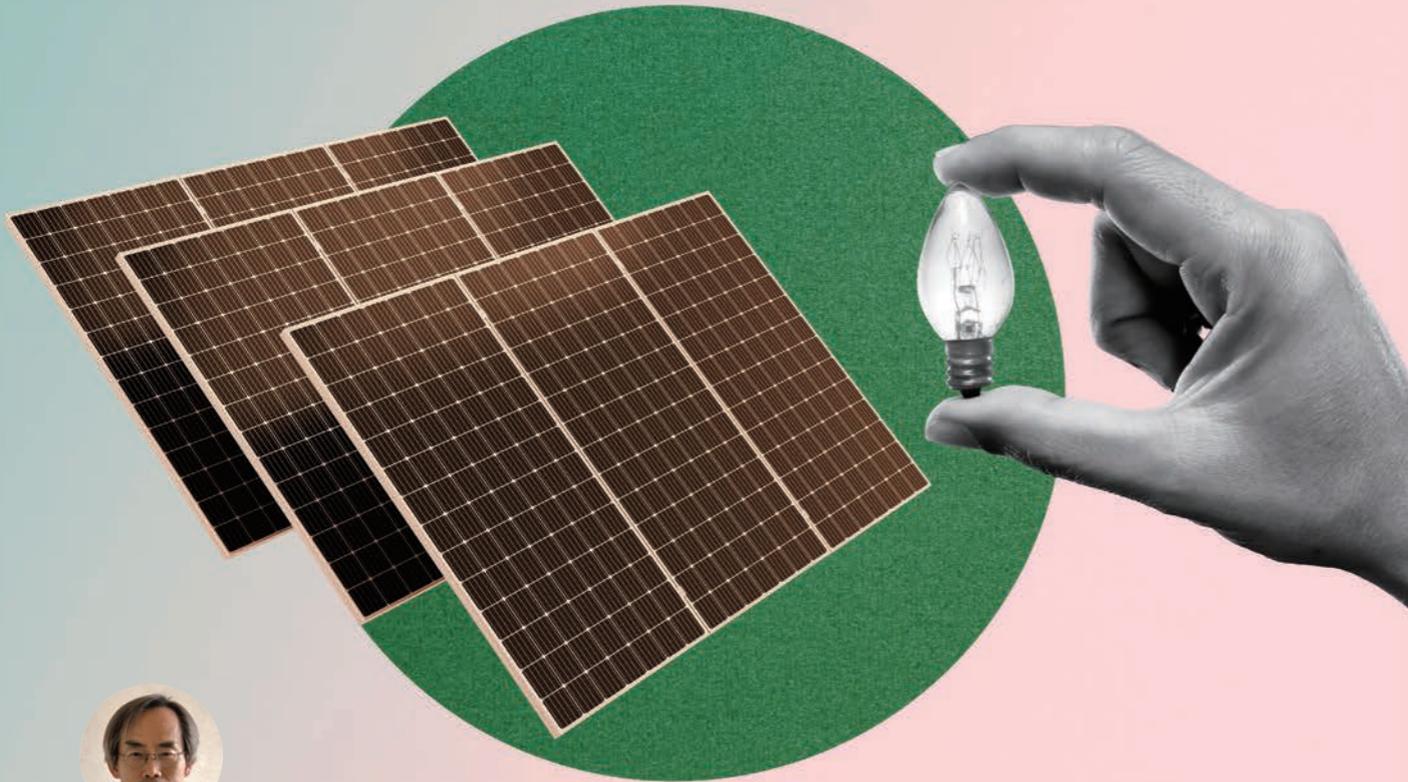


었지만 2분기부터는 부동산PF 관련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5월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골자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PF 사업장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인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본PF 중심의 평가지표를 브릿지론까지 확대해 평가체계를 강화했다. 따라서 2분기부터는 부동산 익스포저 *exposure*, 특정 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에서 본PF 사업장 비중이 높은 은행보다는 브릿지론 비중이 더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 등 비은행 자회사에서 관련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용 적립에도 2024년 은행·금융지주의 대손비용률은 2023년 선제적 충당금 적립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은행·금융지주의 경우 총주주환원율 상승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PF 역시 이번 정상화 방안을 기점으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덜 드는 데다 단점이었던 낮은 발전효율과 불안정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일부 상용화가 시작된 것이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강석기
과학칼럼니스트

LG생활건강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동아시아인스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 <강석기의 과학카페>, <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서>, <식물은 어떻게 작물이 되었나>가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것을 넘어 중병으로 넘어가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더 늘었고,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폭도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지구촌 평균기온이 기록을 경신해 산업혁명 이전보다 1.3°C 더 높았다. 이런 식이면 2030년쯤 1.5°C를 돌파해 2100년에는 3~4°C 더 높은 ‘핫하우스 지구’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현실적인 해결책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크게 늘리는 것뿐임을 인정한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이라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2050년까지 세계 태양광발전 용량을 75TW^{테라와트}로 만들어 전체 전력 생산량의 60%를 맡게 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실렸다.

지구촌 태양광발전 용량은 2022년 1.2TW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목표를 이루려면 태양 패널 생산량을 매년 25%씩 늘려 2037년까지 3.4TW로 만든 뒤 유지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이후 패널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재 패널의 95%를 차지하는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는 와트당 0.3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태양광 시설 설치와 유지, 철거 및 전력공급망과 저장장치 등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다만 실리콘 태양전지를 지금보다 10배 이



상 만들게 되면 원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빛에너지를 흡수한 자유전자가 다시 실리콘 원자에 붙잡히기 전에 양극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때 전기전도성이 큰 은이 운반체 역할을 한다. 이미 세계 은 생산량의 10%가 실리콘 태양전지에 쓰이므로 이대로 가면 품귀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현재 은 함량을 줄이거나 구리 등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만들기도 쉽고 비용도 덜 드는 데다 단점이었던 낮은 발전효율과 불안정성도 크게 개선되면서 일부 상용화가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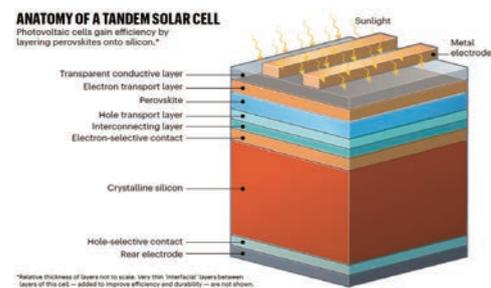
2009년 처음 태양전지에 적용

1839년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화학식이 티타늄산칼슘(CaTiO₃)인 새로운 광물이 발견돼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라 이름 붙였다. 이후

같은 결정 구조를 갖는 화합물 ABX_3 을 통칭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A와 B, X에 어떤 원자가 있느냐에 따라 수백 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고 전기적 특성도 도체에서 반도체, 부도체까지 다양하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연구하던 일본 도인요코하마대의 화학자 미야사카 쓰토무 교수팀은 2007년 이산화티타늄에 광흡수 유기염료 대신 광흡수 페로브스카이트를 코팅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2년 동안 여러 시도를 한 끝에 2009년 시연이 가능한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당시 발전효율은 3.8%에 불과했고, 액체 전해질을 썼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이 얼마 못 가 녹아내린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의 태양전지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다. 당시 미야사카 교수팀이 만든 페로브스카이트는 유기무기 복합소재로 메틸암모늄납요오드화물 $CH_3NH_3PbI_3$ 이다. 이 물질은 빛흡수도가 뛰어난데 특히 파란색과 녹색 영역, 즉 짧은 파장의 가시광선 흡수율이 높다. 실리콘 단결정이 빨간색, 즉 긴 파장에서 흡수율이 높은 것과 비교된다.

1991년 염료감응 태양전지를 처음 개발한 스위스 로잔공대 화학과 미카엘 그라첼 교



☉ 탠덤 셀의 단면을 도시화한 그림.
 제공: 네이처

수는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박남규 교수와 함께 '성능개선' 연구에 뛰어들어 2012년 고체전해질을 사용해 발전효율이 10%에 가까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물리학과 헨리 스네이스 교수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굳이 정교한 나노구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3년 증기증착으로 필름 형태의 결정을 키워 만든 전지로 15%가 넘는 발전효율을 얻었다.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의 만남

그런데 2016년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 실리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쪽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용하는 탠덤 셀 **Tandem cell**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이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최대 흡수를 보이는 파장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리콘 패널에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을 코팅하면 가시광선의 긴 파장 **실리콘**과 짧은 파장 **페로브스카이트** 모두를 최대한 활용하는 셈이 된다.

한편 안정성 문제도 크게 개선됐다. 먼저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성 성분에서 A를 메틸암모늄 같은 유기분자 대신 세슘 같은 무기물로 바꿨고 바깥층을 코팅해 외부 습기의 침투를 막았다. 그 결과 고온다습한 가속노화 조건에서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면서 상용화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옥스퍼드PV로, 중국에서 수입한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위에 증기증착으로 매우 얇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층을 균일하게 도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양산 크기임에도 탠덤 셀 효율이 28.6%에 이



러 실리콘 단독보다 20% 이상 더 높았다. 옥스퍼드PV는 연간 생산량 50MW **메가와트** 규모의 파일럿 생산 설비를 지어 상용화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만든 탠덤 셀을 공급받은 유럽의 몇몇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들은 태양광 패널 **모듈**을 만들어 현장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하는 우리나라도 탠덤 셀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탠덤 셀 연구를 시작한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 1,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연간 생산량 40MW 규모의 파일럿 설비를 짓고 있다. 이곳에서 만든 탠덤 셀이 제 성능을 발휘하면 수년 내에 GW **기가와트** 규모의 상용화 설비를 지을 예정이다.

탠덤 셀은 햇빛의 충분하지 않은 중위도 지역이나 땅이 좁은 곳에서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확실한 비교우위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두 조건에 다 해당해 특히 더 매력적이다. 설치 비용은 약간 더 비싸겠지만 발전효율이 20% 이상 높아 25년 동안 본전을 뽑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저위도 지역은 별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이 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1년 내내 고온에다 우기에는 습도까지 더해지므로 10년을 버티기도 어려울 것이

☉ 영국 기업 옥스퍼드PV는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파일럿 공장을 짓고 연간 50MW 규모의 탠덤 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몇몇 업체가 탠덤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로 현장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없으면 올해 말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공: 옥스퍼드PV

기 때문이다. 한편 페로브스카이트 단독 또는 가시광선 장파장을 흡수하는 조성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붙인 탠덤 셀의 상용화는 불확실하다.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리콘 태양전지 단가가 이미 고려사항이 안 될 정도로 내린 상태라 원료인 은을 줄이거나 대체하지 못해 품귀현상이 생기기 않는 한 안정성이 불확실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선택할 고객은 별로 없을 것이다.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구성 요소를 선별해 햇빛의 가시광선은 대부분 통과시키고 자외선만 흡수하는 전지를 만들면 우리 눈에는 투명하게 보인다. 여기에 역시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적외선만 흡수하는 유기 태양전지를 붙인 탠덤 셀을 만든다면 발전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필름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유기 탠덤 셀은 제조와 설치(유리 표면에 코팅) 비용이 얼마 들지 않으므로 발전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정성이 높은 조성을 찾는다면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유리창이나 유리벽 면적이 넓은 건물에 탠덤 셀을 코팅하면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도 있다.

중위도에 위치하고 땅이 좁고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상용화됐을 때 가장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아직은 일반인에게 낯선 용어인 페로브스카이트가 실리콘처럼 익숙하게 들릴 날도 머지않았다는 예감이 든다.



손자병법과 전승 전략

승리는 기세가 결정한다
기세등등 氣勢騰騰

승리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치밀한 계획과 전략, 승리할 수 있는 구조와 기세야말로 이기는 조직의 특징이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승리의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동양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인문의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세력

이기는 조직은 기세등등

<손자병법> 다섯 번째 편은 '세력'에 관한 내용이다. 세력은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이다. 천 길 낭떠러지 위에서 힘차게 굴러 내려오는 돌의 기세, 대나무가 갈라지면서 보여주는 파죽지세 破竹之勢, 독수리가 두 발로 먹이를 낚아채고 하늘로 비상하는 기세,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세다. 세가 강한 군대는 강한 군대다. 세는 '잡는다(執=Grip)'라는 동사와 '힘(力=Power)'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글자다. 호랑이가 먹이를 꼭 움켜잡는 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힘이 세다. 세가 조직 전체의 힘이려면, 기세는 세가 만들어 내는 조직 구성원의 힘이다. 조직의 세가 좋으면 조직원의 기세가 강해지고, 조직원의 기는 다시 조직의 세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이기는 조직은 기세 氣勢가 끓어오른다 騰騰, 등등. 기세가 등등한 은행 지점에 들어가 보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안전요원의 눈빛이 다르고,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의 미소가 다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대처하는 능력이 다르며, 직원들 간에 서로 대하는 태도도 남다르다. 당연히 성과도 타 지점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 기세등등한 지점의 모습이다. 가만히 보면 지점장이 다르다. 똑같은 직원이라도 누가 지점장이 되느냐에 따라 지점의 기세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손자가 말하는 세력의 원천이다.

세력은 지도자에 따라 다르다

가정의 세는 가세 家勢라 하고 기업의 세는 사세 社勢라 한다. 가세가 기울고 사세가 무너지면 그 집과 회사는 몰락하는 것이다. 조직의 세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뛰어난 지도자의 지도력, 구성원들의 정신과 출중한 체력,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배려, 체계적인 부대 편성과 관리, 원활한 의사소통, 강력한 무기와 체계적인 훈련, 이 모든 것

氣勢騰騰

들이 모여져서 조직의 세를 형성한다. 지도자는 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엄격한 조직관리, 명확한 상벌체계, 배려와 존중, 상호간의 신뢰,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책임지는 용기 등이 조직의 세를 높이는 지도자의 역할이다. 세는 처음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세가 오른 조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세를 만들어 내는 지도자의 지도력이다. 중요한 것은 명분과 관념이 아닌 실재와 실리를 기반으로 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세는 조직의 이익에 기반하여 최적의 중심을 찾는 것이다(勢因利制權, 세인리제권)' 세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인식 아래 최적의 전략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란 손자병법의 실리적 접근이다.

손자는 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하나. '세는 원칙과 변칙의 적절한 배합을 기본으로 한다(勢者, 不過奇正, 세자, 불과기정)' 기(奇)는 변칙이고 정(正)은 원칙이다. 세는 원칙만 가지고 만들 수 없다. 그렇다고 변칙만으로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원칙과 변칙의 적절한 배합만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원칙은 기본이다.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고, 기본기가 있어야 한다. 변칙은 파격적이다.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 파격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둘. 세는 병사들의 힘과 용기에 영향을 미친다. '원

손자는 세가 있는 조직의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분수(分數), 인원과 임무 편성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조직이다. 한 사람의 장수가 수만 명의 병사를 통솔할 수 없다. 숫자(數, 수)를 나누어 분산(分, 분)해서 믿고 맡겨야 한다. 분대, 소대, 중대, 대대 등 다양한 부대 편성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여져야 한다. 조직이 얼마나 잘 나누어져 있고, 명확한 임무가 부여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세(勢)다.

둘째는 형명(形名),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다. 시각(形, 형)과 청각(名, 명)의 통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이 세가 있는 조직이다. 깃발과 북 등의 소통 수단이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어야 한다. 상하와 동료 간의 의사소통은 높은 전투력을 만들어 내는 세의 요소다.

셋째는 기정(奇正), 원칙(正, 정)과 변칙(奇, 기)이 잘 배합돼 운영되는 조직이다. 기본과 창의, 원칙과 변칙이 만나 기상천외한 전략을 만들어 내면 상대는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상대에게 읽혀지지 않을 때 높은 세를 가진 조직이 된다.

넷째는 허실(虛實), 허(虛)와 실(實)을 정확히 알고 있는 조직이다. 적의 허와 실은 무엇인지, 나의 허와 실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허를 찌를 수 있어야 하며, 나의 허를 상대가 모르게 할 때 세가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승리를 우연히 얻어지는 결과라고 하지 않는다. 치밀한 계획(計, 계)과 준비(作, 작),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謀, 모), 승리할 수 있는 구조(形, 형)와 기세(勢, 세)는 이기는 조직의 특징이다. 주관적인 판단과 막연한 희망, 신비적인 주술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승리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손자병법>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전략이다. 📖

래부터 용감하고 겁쟁이 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에 따라 겁쟁이가 되기도 하고, 용감한 자가 되기도 한다(勇怯, 용, 세야) 아무리 겁쟁이 병사라도 세가 있는 조직에 들어오면 용감한 병사로 변모하고,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세가 없는 조직에서는 겁쟁이 병사로 변한다. 지도자는 병사들의 무능을 타하기 전에 병사들이 용감한 병사가 될 수 없는 세를 만든 자신을 탓해야 한다.

셋. 세는 장마철 흐르는 급류와 같다. '급류가 속도가 붙어 힘차게 흐르면 거대한 돌도 떠오르게 한다(激水之疾 至於漂石者 勢也, 격수지질 지어표석자 세야)' 그냥 흐르는 물에는 힘이 없지만, 격랑을 치며 세가 붙어 흐르는 물은 거대한 바위도 들어올린다. 속도가 만들어 내는 거대한 에너지다. 조직에 세가 붙으면 어떤 상대도 막을 수 없다. 다윗이 던진 돌맹이에 세가 붙으면 골리앗도 한방에 쓰러트릴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세다.

가업 승계, 상속이 좋을까 증여가 좋을까?

가업 승계는 창업 1세대가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물려주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 같은 무상이전 방법이 있고 사업양도 같은 유상이전 방법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이나 증여를 선택할 때 과도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세금이 많이 발생하면 가업 승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둘로 나눠 가업 승계 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선택 요령을 살펴보자.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현직 세무사로 20년 넘게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한 각종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80여 권의 저서가 있다.

개인기업의 승계 방법

개인기업은 주식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승계 방법이 단순하다. 개인기업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상증법에 따른 재산평가

개인기업도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당해 사업체와 관련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당해 사업체의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과 부채는 일반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 ▶ 영업권을 누락하면 상속세 등이 추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 혜택 확인

상증법에서는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해 주기 위해 상속 시 최대 600억 원^{10~20년 미만은 300억 원, 20~30년 미만은 4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인기업을 미리 증여받으면 별다른 혜택이 없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는 법인기업에도 적용한다.

셋째, 개인기업은 상황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 선택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크다면 증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대표자의 사업 영위 기간이 길다면 상속을 선택해 최대 600억 원까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사업자 명의 교체 등의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사업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기업의 승계 방법

법인기업을 상속이나 증여하면 주식평가의 과정이 개입되고, 주식의 사전 증여에 따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법인기업의 승계 방안을 수립할 때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도 한다.

첫째, 상증법에 따른 재산평가

법인기업은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주식평가를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세무회계사무소 등의 조력을 받아 평가하도록 한다.

- ▶ 상장주식 :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 증가평균
- ▶ 비상장주식 :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로 가중평균

둘째, 가업 승계에 따른 조세 혜택 확인

법인기업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혜택이 있다.

- ▶ 주식의 사전 증여 시 : 증여세 과세특례(증여공제 10억 원, 세율 10~20%로 하는 제도)
- ▶ 가업 상속 시 :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 하는 제도)

참고로 사전에 증여받은 주식은 향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상속세로 정산됨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법인기업은 주식 가치의 향방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 선택

법인의 주식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승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다만 위에서 본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한 경우라도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일 현재의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므로 향후 주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면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면 주식 가치의 향방을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사전 증여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도 있어 사전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가업 승계,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지원제도 비교

구분	사전 증여(조특법 30조의 6)	사후 상속(상증법 18조의 2)
지원 기업	법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인과 법인 (업종의 범위는 왼쪽과 같음)
지원 내용	주식 증여 시 저렴한 증여세 과세: (증여가액-10억 원)×10~20% ⇒ 사전 주식증여금액은 향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	300~6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면세
지원 요건	• 부모가 10년 이상 가업 영위 • 자녀는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 및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 피상속인 40%(비상장)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 상속개시일 2년 내 상속인이 대표자로 취임 등
사후 관리	5년 이내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등은 증여세 추정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90% 이상 유지 등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정

퇴직자 최고의 관심사 실업급여, 주요 이슈는?

작년 7월, 국회 공청회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이 이슈가 됐다. “젊은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못 사는 명품 선글라스와 옷을 사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불가피한 실업상황에 놓인 구직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장내석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노무사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기업들의
 인사평가나 보상설계와
 같은 HR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실업급여의 취지와 지급대상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3가지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18개월 동안 직장을 2곳 이상 다녔더라도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일 것
 다른 회사로 이직, 학업이나 육아를 위한 퇴직 등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회사에서 해고 당해 실업자가 됐더라도 재취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Q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무조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나?

기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인 사직으로 처리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권고사직이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업 개편 등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일부 직원들에게 사직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 또한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계속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서울

에 근무하는 직원을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사업장으로 발령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되는 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 하길 바란다.

Q 최근 직장 내 괴롭힘도 많이 발생하는데,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던 디자인팀 직원이 ‘팀장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올린 시안만 4~5번씩 반려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퇴사했지만 결국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그 직원이 올린 디자인 시안에 내용상 오류가 많은 데다 거러져 로고도 잘못 넣어 승인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팀장이 그 직원을 싫어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Q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1일치의 60% X 지급일 수’로 책정된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현재 1일 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 3,104원이다. 약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Q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간혹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권고 사직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해당 수급자와 사업주가 각각 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혁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업인은 바로 혁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인물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다.

25세 청년 구인회는 엄격한 유교 집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집 장손이 장사꾼이라니!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다!

며칠 간의 심사숙고 끝에 결국 집안의 허락을 얻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버지 세상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네요.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인회야, 일이 처음에는 잘 안될지라도 그대로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10년은 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겠니? 멀리 내다보거라

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구인회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 해

생활필수품이 부족하던 시절 무역회사를 설립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장을 넓혀가던 구인회는 1947년 자신의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줄 기회를 맞는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신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크림입니다.

오.. 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화장 크림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던 구인회는 제조와 원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번 돈을 모두 투자해 직접 화장품을 제조해냈다. 이를 계기로 LG의 기원이 된 락희화학공업사가 창립됐다.

럭키 락희화학공업사

구인회는 질 낮은 중국계 향료 원료 대신 발품을 팔아 일본의 품질 좋은 시오노 향료와 거래하며 저렴하고 우수한 퀄리티로 럭키 크림을 국내 화장품 1위로 만든다!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어!

그의 이러한 사업 신념은 LG그룹이 럭키, 금성사 등 8개의 회사를 포함한 대그룹으로 성장하는 데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1951년에는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필수품 부족을 돕고자 플라스틱 사업을!

크림비누

196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기업에 의한 석유화학 사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칼텍스 한국석유

호남정유

전자 공업에도 도전한 구인회는 특유의 도전과 개혁정신으로 금성사를 설립해 국내 최초의 라디오를 생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선풍기, 흑백TV,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만들어 국내 가전제품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금성

인화와 개혁정신으로 기업을 키워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구인회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세요.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한 일에 대해 과감하게 진행하고 성공하더라도 만족하지 말고 더 높고 어려운 도전에 도전하시면 성공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수출



수출, 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하며 1월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54.5% 증가하며 호조세를 지속했고, 자동차 수출액(67.9억 달러)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도 미국, 중국을 비롯한 7대 주요 수출 지역이 모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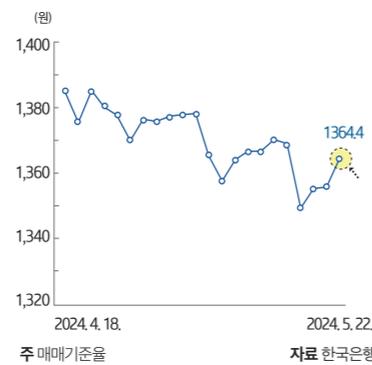
물가상승률은 2%대 재진입

4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농축수산물과 서비스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3.1→2.9%, 전동비)됐다.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역시 상승폭이 축소(2.4→2.2%)되면서 물가는 구조적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품목별 상승률(% , 전동비, 2024년 3월~4월): (석유류) 1.2~1.3, (농축수산물) 11.7~10.6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5월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큰 모습

(2024년 5월 2일 1,378.0원→5월 13일 1,367.9원→5월 22일 1,364.4원) 5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엇갈린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자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돼 1,350원대로 하락했고, 이어 물가상승률과 소매 판매 증가율 둔화가 확인되자 16일 약 20원 하락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그러나 연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올해 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2024년 2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71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4년 2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371원으로 조사됐다. 1,370원 이상 1,385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4년 4월 22일~5월 20일

원/100엔 환율 동향



원/유로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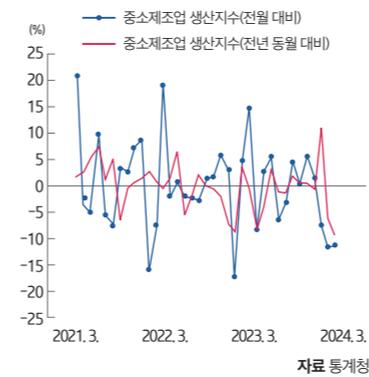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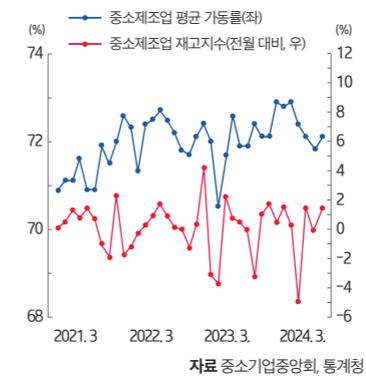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3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2%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전기장비(-7.3%) 등에서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증가한 업종은 음료(1.4%)가 유일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30.3%), 의약품(10.8%), 전자부품(6.9%)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22.6%), 자동차(-9.0%), 금속가공(-10.0%)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가동률,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3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72.1%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0.3%포인트 감소한 68.5%, 중기업(50~299인)은 0.5%포인트 증가한 76.2%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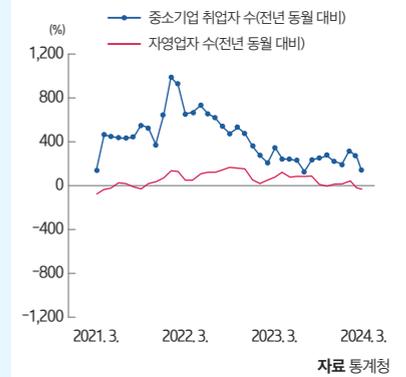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3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방송장비(12.0%), 영상·음향기기(24.2%), 의료정밀광학(1.9%) 등에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5.1%), 전기장비(-3.2%), 반도체(-2.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취업자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3월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5만 4,000명 증가,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6만 6,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2,52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4년 3월 자영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6,000명이 감소해 557만 명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One-Point 경영컨설팅 (경영권 승계) 실시 안내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로 기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애로사항 중 '후계자에 대한 경영교육 부재'가 상위권을 차지
현행 기업승계컨설팅이 주로 집중하는 조세 관련 이슈 대응뿐 아니라 차세대 CEO의 경영역량 육성 등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One-Point 경영컨설팅'이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컨설팅 주제를 세분화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솔루션 제공



주요 내용

① 경영권 승계 Planning

대상: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등

내용: 現 기업 상황을 분석하여 Next CEO의 주요 미션을 파악하고, 후계자의 의지와 생각을 고려하여 성장경로 설정, 역량 육성 등 승계 로드맵 수립



② 후계자 맞춤 교육 및 멘토링

대상: 후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육성을 원하는 기업 등

내용: 후계자의 현재 수준과 중요도에 따라 단계별 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CEO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및 지속적인 멘토링 지원

③ 전문경영인 도입 방향 가이드

대상: 승계할 자녀가 없는 기업, 제3자 경영을 고려하는 기업 등

내용: 전문경영인 선임, 평가·보상, 권한·책임 관점에서 관리 포인트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인 도입 사례 공유 및 적용 방향 설정

수행 방법 컨설턴트가 기업에 상주하며 컨설팅 수행(1주 이내)

신청 방법 거래영업점을 통한 신청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900호(2024.05.21) 유효기간(2025.05.20)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익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0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익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정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중부의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